

文學書 추천의 객관성과 주관성

헤르만 헤세의 「世界文學文庫」_下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셰익스피어와 제임스 본드

“나는 왜 제임스 본드보다 셰익스피어가 더 훌륭한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셰익스피어보다 제임스 본드를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이렇게 말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문학교육적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글로 쓴 사람은 제임스 그리블(James Gribble)이다(이 책은 우리에게 번역돼 있다-「文學教育論」 문예출판사, 1987).

학생이 스스로 셰익스피어가 좋은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것이 좋다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교사 자신마저도 실은 피곤한 학교교육이 끝난 뒤 셰익스피어를 읽는 일은 없고 제임스 본드를 읽는 것이 사실이며, 더더욱 그것보다도 TV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느냐는 고백을 그리블은 이 글에서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 글의 요지는 결국 문학교육적 문학목록들의 객관성과 주관성이란, 작품의 문학사적 평가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환경과 감수성에까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더 간결하게 표현한 것은 리처드 피코크(Richard Peacock)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의 제재 · 소재 · 사상에 관한 모든 것은 감각적인 반응의 단순한 수준에서부터 지적 · 정서적 · 도덕적 성격의 복잡화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적 흥미와 가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 모든 흥미와 가치는 매우 복잡한 패턴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또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취향이 가미된다.”

따라서 시에 있어 부적절한 리듬까지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계기일 수 있으며, 그의 개인적 역사에 의해 가장 비논리적인 이야기의 순서도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문학작품들의 반응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목록들에 있어 과연 결작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의 소산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 누구도 적절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대담하고 단호한 헤세의 '선택'

이 점에 있어서 헤르만 헤세는 아예 객관

문학교육적 문학서목록의

객관성과 주관성이란,

작품의 문학사적 평가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환경과 감수성에까지도

연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헤세는

아예 객관성이라는 것을 포기하지만,

그의 선택은 오히려 친근하고

설득력이 있다.

성이라는 것을 포기한다. 그는 터놓고 주관적이며,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임을 명백히 한다. 그의 선택은 그러나 뜻밖에도 일찌기 현장감 각적이어서 독단적으로 보이기보다 오히려 친근하고 설득적이다. 70년 이후의 문학교육적 피로움의 발견이 실은 헤세에게서 50년도 더 되는 이전에 해답까지 나와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예컨대 그는 문학목록의 선택을 이렇게 한다.

“우리들의 교사들은 밀튼의 「失樂園」에 매우 존경의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들 중 누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따라서 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적당하다고 판정하고 포기해 버리고자 한다. 그리고 체스터필드가 그의 아들에게 보냈던, 분명히 부도덕한 편지들을 우리들 文庫에 넣기로 하자.”

“바이론에 대해 나는 그 초인적 낭만성에 언제나 감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文庫로서는 그의 長詩 「차일드 해물드」 하나로써 만족한다. 월터 스코트도 한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아이반호」-이것은 좀더 경건한 마음으로 만족하자.”

“스페인에서 우리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매력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세르반테스에서 머물기보다는 스페인類의 惡漢小說을 하나 더 갖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모험과 엉뚱한 기지에 찬 소설 계베도의 「大惡漢 파브르 세고비아」를 이 경우로 결정한다.”

“러시아語의 위대한 고전작가 푸시킨의 작

품은, 그러나 번역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시킨은 그대로 지나쳐 고골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의 「죽은 魂」과 작은 短篇集 하나를 러시아문학의 출발로 하자.”

「걸리버여행기」의 경우

인용이 좀 길어졌지만 의도적인 것이다. 헤세의 선택에서 그가 대담하고 단호하게 버려 버리는 밀튼과 푸시킨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 이유가 각기 또 다름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읽지도 않으면서 늘 적어가지고 다니는 名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번역이 있을 수 없다는 단정 때문인데 이 두 원칙은 그러나 대단히 귀중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서구문학목록들의 수용에 있어서 이 두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준수해 왔다는 현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버려야 할 원칙에서의 목록마저도 그 선택은 우리의 것이었다기보다는 일본의 것이었다. 이 목록의 기피했어야 마땅했을 증상은, 그러나 또 더욱 아동문학서목록에 야만적으로 고찰돼있다.(이 부분은 차후에 아동문학서 목록에서 더 언급할 생각이다)

그 결과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같은 경우까지 나타난다. 앞서 제19호에도 이미 들어 있지만 「걸리버 여행기」는 교양문학서목록에서보다는 교양사상서목록에 더 잘 등장하는 작품이다.

헤르만 헤세도 「걸리버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

“「걸리버」의 작가 스위프트(1667-1745)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여하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넣기로 하자. 그의 넓은 마음, 신랄하고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유머, 고독한 창작성 등은 병적인 기질을 가진 번덕심을 갖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걸리버 여행기」의 우리의 수용 형태는 과도하게 요약된 아동문학서의 한권 뿐으로 고정돼 있다. 그 결과 누구나 「걸리버 여행기」를 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저 소인국과 대인국의 재미있는 동화 썸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원작을 읽는다는 일은 그것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간사회의 비인간적인 사회구조와, 권위주의와 인간성간의 갈등과, 그리고 비리와 그 비리들의 승리에 대한 많은 본질적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회 소설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은 명백한 객관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객관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누군가가 완역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일조차 하찮은 일이 됐다. 문학서목록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특히 새로 읽기 시작하는 새 젊은 독자들의 목록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새 접근운동이 일어나야만 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로서는 여러번 반복한 이야기지만 이 지점에 다시 적어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우리의 한 외교관이 프랑스의 외교관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프랑스 외교관-“당신네 나라에서도 프랑스문학을 읽는가.” 우리의 외교관-“물론이다. 거의 전작품을 번역해 읽는 작가까지 있다. 카뮈, 생텍쥐베리, 그리고 발자크도 열권이 넘게 번역돼 있다.” 프랑스 외교관-“그런가. 그러나 왜 발자크까지 읽는가. 우리도 발자크는 이미 한권도 안 읽는데?”

헤세의 목록은 전부 160명의 저작자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작품수로는 명백히 헤아리기 어렵다.

셰익스피어와 스위프트처럼 全작품인 경우도 있고, 쇼펜하우어처럼 전집의 어느 권, 또는 한 작품을 각기 선택해 10목록을 나열했으나 실제로는 30목록인 것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이 목록의 전재는 하지 않으려 한다. 헤세의 탁월한 주관성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지난호 고전목록 이후의 작품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알려지거나 번역된 것들로만 옮겨 두려 한다. 하지만 물론 번역의 質을 참작하거란 무망한 일이다. 이점은 묵살하는 만용을 선택하자.

〈헤르만헤세의 近代 이후 文學목록〉

「수상록(Les Essais)」

몽테뉴(Montaigne)

「가르강튀아(Gargntua) / 빵따그뤼엘

(Pantagruel) 라블레 (Francois Rabelais)
 「광세 (Pensées) / 예수이트 僧侶의 편지 (Lettres Provinciales)」 파스칼 (Pascal)
 「르 시드 (Le Cid)」 코르네이유 (Corneille)
 「페에드로 (Phédre)」 라시느 (Jean Racine)
 「寓話集 (Fables)」 라 폰텐 (La Fontaine)
 「깡디드 혹은 樂天主義 (Candide ou l'optimisme)」 볼테르 (Voltaire)
 「피가로의 결혼 (Mariage de Figaro)」 보마르셰 (Beaumarchais)
 「참회록 (Confessions)」 루소 (J.J. Rousseau)
 「騎士 데 그뤼와 마농레스꼬와의 이야기 (L'Histoire du Chevalier des Grieux et Manon Lescaut)」 아베 프레보 (L'abbé Prévost)
 「赤과 黑 (Le rouge et le noir) / 파르므의 僧院 (La Chartreusede Parme)」 스탕달 (Stendhal)
 「감정교육 (L'éducation sentimentale)」 플로벨 (Gustave Flaubert)
 「神父의 罪 (La Faute de L'Abbé Mouret)」 졸라 (Emile Zola)
 「단편선집」 모파상 (Guy de Moupassant)
 「나의 감옥 (Mes Prisons)」 베를렌 (Paul Verlaine)
 「캔터베리 이야기 (Canterbury Tales)」 초서 (Geoffrey chaucer)
 「세익스피어 全集」
 「아들에게 주는 편지 (Letters to his Son)」 체스터필드 (Lord Chesterfield)

「걸리버旅行記 (Gulliver's Travels)」 스위프트 (Jonathan Swift)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유명한 몰 폴란더스의 幸運과 不幸 (Fortunes and Misfortunes of the Famous Moll Flandevs)」 데포 (Daniel Defoe)
 「셸리시집」 (Percy Bysshe Shelley)
 「키츠시집」 (Jhon Keats)
 「차일드 해롤드의 巡禮 (Childe Harold's Pilgrimage)」 바이론 (Lord Byron)
 「아이반호 (Ivanhoe)」 스코트 (Sir Walter Scott)
 「영웅숭배론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 衣裳哲學 (Sartor Resartus)」 칼라일 (Thomas Carlyle)
 「아편중독자의 고백 (Confessions of an English Opium Eater)」 드 퀴시 (Thomas De Quincey)
 「허영의 시장 (Vanity Fair)」 새커리 (William Makepeace Thackeray)
 「黃金벌레 (Gold-Bug)」 포우 (Edgar Allan Poe)
 「풀잎 (Leaves of Grass)」 휘트먼 (Walt Whitmann)
 「돈키호테 (El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세르반테스 (Miguelde Cervantes Saavedra)
 「발삼의 傳說 (Die Legende des Baalsc-

hem)」 마틴 부버 (Martin Buber)
 「童話全集」 안델센 (Hans Christion Andersen)
 「민중의 敵 (En forkefiende)」 입센 (Henrik Ibsen)
 「죽은 魂」 고골리 (Nikolai Vasilievich Gogal)
 「獵人日記 (Zapiski Ochotnika)」 투르게니에프 (Javan Sergeevich Turgenev)
 「戰爭과 平和 (Voina i Mir) / 안나카레니나 (Anna Karenina)」 톨스토이 (Lev Nikolaevich Tolstoi)
 「카라마조프가의 兄弟 (Bratya Karamazov)」 도스토예프스키 (Fyokov Mikhailovich Dostoevski)
 「독일민족의 기독교귀족에게 보내는 글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루터 (Dr. Martin Luther)
 「민요에 나타난 여러 민족의 소리 (Von der Urpoesie der Volker)」 헤르더 (Johann Gottfried Herder)
 「실러와의 왕복 書簡 (Briefwechsel zwischen schiller und Goethe in den Jahren 1794-1805)」 괴테 (Goethe) (이경우 全集은 1920년대 레클람版)
 「저작집과 詩集」 (Friedrich Hölderlin)
 「보이체크 (Woyzeck) / 단톤의 죽음 (Dantons Tod) / 레온스와 레에나 (Leonce und

Lena)」 뷔히너 (Georg Büchner)
 「바가바트기타 (聖婆伽梵歌)」 (Glasenapp 譯本)
 「全集 6권 外」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佛陀, 그의 生涯, 그의 가르침, 그의 教團 (Baddha, sein Leben, seine Lehre, seine Gemeinde)」 올덴베르크 (Hermann Oldenberg)
 「푸른 하인리히 (Dergrüne Heinrich)」 켈러 (Gottfried Keller)
 「日記 (Tagebücher)」 헤벨 (Friedrich Hebbel)
 「全集」 및 「괴테와의 對話 (Gespräche mit Goethe in den Letzten Jahren seines Lebens)」 액커만 (Johann Peter Eekermam)
 「劇選集」 한스 작스 (Hans Sachs)

**온라인 컴퓨터 사식
 조판 시스템 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진영사
 733-5755

• 컴퓨터사식사 • 수동사식사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

네모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 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다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 313-4723 이상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전산시스템 가동

유진 AD

273-6486

광고 기획 / 편집 / 사진작가 / 전산사자

FAX 273-6173

■ 레이저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글 / 더 / 잘쓰기 / 총서

- 1 글의 비밀 / 金炳元 / 3,500원
- 2 논픽션 쓰는 법 / 헤이즈 B. 제이콥스 / 金炳元역 / 4,000원
-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 伊藤整 / 李基炯역 / 4,500원
- 4 추리소설 쓰는 법 /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 / 高廷基역 / 4,500원
- 5 동화 쓰는 법 / 리 와인담 / 李相琴역 / 4,500원
- 6 그림책 쓰는 법 / 엘렌 E. M 로버츠 / 金正 역 / 5,000원
-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 엘렌 F. 심버그 / 高廷基역 / 4,000원

普成社 서울·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719-0784